

인과관계에서 본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 용법*

김혜연**

〈 Abstract 〉

The meaning and usage of nakerebanaranai from a causal relation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 and usage of nakerebanaranai from the viewpoint of special features of the sentence, the predicate and the agent. This study reveals that nakerebanaranai appears in causal relationship sentences, and mainly represents the “result”. Further, nakerebanaranai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realize such a proposition, but it is mainly used in the context in which its realization is negatively described. This paper also notes that, in terms of a predicate, an action predicate is mainly used and the agent is primarily a specific person.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action, the agent can choose it (realization of action) in some cases, and cannot in other cas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claims that nakerebanaranai is a modal expression that denotes ‘it is necessary’ within a proposition.

Field : Semantics

Keywords : Causal relation, Nakerebanaranai, Special features of the sentence, The predicate,
The agent

1. 머리말

판단에 관련된 모달리티 연구에는 연구에 따라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인식적 모달리티(epistemic modality)와 가치판단 모달리티(deontic modality)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모달리티 형식으로는 「ようだ」「らしい」「かもしれない」「はずだ」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べきだ」「なければならぬ」「ざるを得ない」 등이 있다. 모달리티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인식적 모달리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가치판단 모달리티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판단 모달리티의 대표적인 형식인 「なければなら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의미용법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070)

** 건국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1) 「なければならぬ」는 「なくてはいけない」「ないとだめだ」 등 다양한 유의표현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치판단 모달리티 중 「なければならぬ」에 주목하고 있지만, 앞으로 「べきだ」「ざるを得ない」 등 다른 가치판단 모달리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치판단 모달리티의 체계화를 도모할

본 연구에서는 『新潮文庫の100冊』에서 지문(地の文)²⁾에 나타나는 「なければならぬ」의 용례 172 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³⁾, 인과관계라는 관점에서 「なければならぬ」문의 특징, 술어, 동작주의 인칭을 중심으로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 용법을 고찰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련성

益岡(2007), 高梨(2010)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를 가치판단 또는 평가 모달리티 안에서, '필요류'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高梨(2010:29)는 '필요류'를 「ある事態が必要だという評価を表す」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しかし、知的な作業を独善的な立場から引き出して時間の腐敗食に耐えるものにするためには、国際的討論の場は必要であり、こうした場に加わって知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ていくための戦略的見通しと知的技術は、どうしても開発しなければならぬ⁴⁾。

(山口昌男「知の遠近法」)(益岡2007:216)

- (2) 局後の王も「逆転したと思ったのが錯覚だった、もっと追及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語っている。(毎日新聞2002.1.7.)(高梨2010:83)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뿐만 아니라, 주로 「べきだ」「てもいい」 등의 모달리티 형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치판단 모달리티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어, 「なければなら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なければなら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奥田(1999)를 들 수 있다.

奥田(1999)는 「なければならぬ」를 <필연>과 <필요>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奥田(1999:223)는 <필연>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必然を表現する文は、ある出来事を原因に、結果として生じてくる、物の変化、状態を判断の中にとらえている

그리고, 奥田(1999)에서는 (3)과 같이, 「なければならぬ」문의 사태의 동작, 상태 등이 주체의 의지에 의해 컨트롤 가능한 경우는 <필요>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4)의 しぬ나 くるしむ, うえる와 같이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불가능한, 인간의 심리적인, 생리적인 상태 등은 <필연>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를 고찰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지문에 나타나는 「なければなら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회화에 나타나는 「なければならぬ」문도 분석하여, 그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지문과 회화에서는 工藤(1995)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텐스, 모달리티의 사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과 회화는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 논지의 일반화에 있어서 용례수가 적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본 결과, 일정한 경향이 나타났다. 앞으로 용례수를 늘려,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なければならぬ」의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 (3) そして、彼はできるだけ自然に、幸子の手をとってひきよせようとした。幸子は身体をかたくして、彼に応じようとしなかった。
 「私、はやくかえらなければならぬわ。」
 と、彼女は口のなかでつぶやいた。 [後略] (汎濫)(奥田1999:228)
- (4) 卒業をすれば、りっぱになって、東京へでもひきとるのが子の義務である。にげてかえれば、親子ともうえて、しななければならぬ。(夜分)(奥田1999:254)

또한, 奥田(1999)는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와 사용을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유형화하여, <필요>에는 (5)와 같이 <규범적인 필요>와 (6)과 같이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5) ことに平氏側のかりだしは、情け容赦がなかった。民衆は平氏と主従関係もなかったが、京の政府の政庁から命令をだされると、いやいやながら戦場にのぞまねばならなかった。 [後略] (親鸞)(奥田1999:239)
- (6) 三吉も書生ではいられなくなった。家をもつしたくをするためには、きまった収入のある道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彼は学校教師の口でもさがすように余儀なくされた。(家)(奥田1999:249)

奥田(1999)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가 인과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奥田(1999)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가 어떤 조건에서 <필요>와 <필연>을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문의 기본적인 특징은 奥田(1999)에 따라, 인과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なければならぬ」문의 인과관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며, 본 연구에서는 용례분석을 통해, 「なければならぬ」문이 <원인>과 <결과> 중 어느 쪽에 나타나기 쉬운지 그 경향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なければならぬ」의 기본의미와 연관 지어 고찰한다. 또, 「なければならぬ」를 「なければならぬ」문의 특징, 술어, 동작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밝힌다. 본 연구에서 3개의 관점을 설정한 이유는 「なければならぬ」이외의 가치판단 모달리티, 무표형식과의 비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べきだ」「ざるを得ない」등과의 비교를 통해,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 특징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논하겠지만, 「なければならぬ」는 술어 부분에 많지는 않지만, 상태동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또한, 동작주의 제한도 없다. 하지만, 「べきだ」는 술어에 상태동사나 형용사는 올 수 없으며, 1인칭 동작주도 올 수 없다. 본 연구에서의 3개의 기준은 앞으로 가치판단 모달리티 안에서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를 분석한다는 점, 또한, 「なければならぬ」문의 특징, 술어, 동작주의 출현경향을 용례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奥田(1999)와는 구별된다. 또한, 奥田(1999)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를 <필요>와 <필연>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의 기본의미는 <필요>라고 생각하고 있다.

3. 인과관계에서 본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 용법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사태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인과관계라고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원인>이란 <결과>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유, 조건, 목적 등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

(7) 彼は勉強をしなかったので、試験に落ちた。

(7)은 「彼は勉強をしなかった」와 「試験に落ちた」 2개의 사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은 전자가 <원인>, 후자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개의 사태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 문도, (7)과 같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8) 太郎が画塾へきたときは、ちょうどこのヘルガ嬢の第二便のあとで、ぼくは仕事に着手しかけたばかりのところだった。約束の期間は三ヵ月なので、相当の枚数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バ)

(9) 畑で穫れたキャベツや菠薐草が食卓にでて、それは荒く刻んで醤油で煮つけた調理法であった。それに量がすくなかった。たとえば、菠薐草をおひたしにして食べるには、それだけ時間と手間と予算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冬)

(8)(9)에서는 「ので」「には」절, 다시 말해, 종속절이 <원인>, 「なければならぬ」 앞의 절, 다시 말해, 주절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 문이 나타내고 있는 사태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결과>를 나타내는지 <원인>을 나타내는지 그 경향을 살피고, 「なければならぬ」 문의 특징, 술어, 동작주의 관점에서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 용법을 분석한다.

3.1 「なければならぬ」 문의 특징

용례분석 결과, 「なければならぬ」 문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72예 모두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⁵⁾.

「なければならぬ」는 「ので」「から」「ために」 등과 같이 원인을 나타내는 절과 함께 쓰인다.

5) 용례 172예 중 「なければならぬ」가 「ので」「ため」「から」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3개 있었다.

- ・私たちの会社では毎月十日すぎに各課の総合会議がひらかれる。六月の中旬から特売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その月の会議にはいつもとちがって全国各地の支店長や出張所長が集まり、担当重役は全員出席していた。(バ)
- ・「急行に乗り遅れたんだ。六時に起きたんだけど……それでも間に合わなくて……仕方ないんで鈍行で来たんだ」
高崎から来なければならぬのだから、少しくらい遅れることがあっても仕方ない。(一)

위 예들의 「なければならぬ」는 얼핏 보면 <원인>을 나타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문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회사의 연간일정 상(원인), 6월 중순부터 특판을 실시해야만 한다(결과)', '집이 高崎이기 때문에(원인), 高崎에서 와야만 한다(결과)' 등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10)はじめは興味を感じて俊介に協力していた連中もネズミがひっきりなしにおくられてくるとげんなりして手をひいてしまったので、俊介は一人で黒焦げの死体の始末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バ)
- (11)男子の小便所とその大使用とは続いていた。塾生達は下が糞状になった男子用に雀のように何人も並び、呵々大笑しながら悠々と小用を足している。休み時間は限られているからその時でも吟子は一つだけある大使用に入らなければならぬ。だがこの時が吟子にとっては一番辛い時間であった。(花)
- (12)興行とテレビの関係、ジムとジムの力関係、多くのことに無知だったために、思わぬ遠回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一)

(10)~(12)의 「なければならぬ」가 나타내고 있는 사태는 「ので」「から」「ために」가 나타내고 있는 사태(원인)에 의해 필요시 되어, 실현된 사태(결과)이다. 예를 들면, (10)에서는 ‘俊介에게 협력해 주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원인), 혼자 일을 처리해야 했다(결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2)에서는 ‘체육관과 체육관간의 힘 관계 등 많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원인), 많이 돌러가야 했다(결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3)(14)는 「なければならぬ」가 「ば」「と」등과 같이 조건절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의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도 어떤 조건(원인) 하에서 실현(결과)된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3)勝てばいい。しかし、負ければその次の日から職を探さなければならぬのだ。(一)
- (14)見送りの人の声が一つの声となってまき起こった。吟子はじつと頭を下げていた。なまじっか顔をあげると誰かを見なければならぬ。誰か一人に視線を合わせることは他の人に失礼になる。(花)

(13)에서는 ‘시험에서 지게 되면(원인), 직장을 찾아야 한다(결과)’, (14)에서는 ‘고개를 들면(원인), 누군가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なければならぬ」는 (15)(16)과 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ために」「には」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 (15)しかも、四十万のアドバンスが、崔に想像以上の心理的圧迫を加えていた。せっかく手にしたその金を返さぬためにも、なんとかして試合を成立させねばならぬと思込んでいるようなのだ。(一)
- (16)要するに私の欲するままにさせておいて貰いたいのである。私の欲することを止めさせるには、あの比島の山中の将校のように、私の欲する前に、私に薦めねばならぬ。私の欲望は到って少ないのであるから、一度欲してしまってからでは間に合わない。そして誰も私に欲しないことをさせることは出来ないのである。(野)

(15)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원인), 시험을 성립시켜야만 한다(결과)’, (16)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원인), 내가 바라기 전에, 나에게 추천해야만 한다(결과)’ 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15)(16)에서도 「なければならぬ」가 나타내고 있는 사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なければならぬ」의 화자는 동작주에 있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을 '필요가 있는' 사태로써 판단하고 있지만, 그 사태의 실현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

(17) 夜には大畑に会わねばならぬ。気が重かった。今度は何と言われるだろう。

「まさか頭取りになれとは言わないでしょ」

と、やけ気味に伸子は独り言を言った……。 (女)

(18) しかし、夫に言われるまでもなく、行介を少年院に送らなければならぬ、と思うと、気持ちが沈んできた。あのような社会から遮断された場所で、あのように人を笑顔で迎えることが、あの子にはどうしてできるのだろうか。もし、あのとき、行助を小田原にやってあったら、こんなことはおきなかったはずだ、と澄江は、とりかえしのつかないものを感じた。 (冬)

(19) 祖父のコネで一流会社に入れ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かった。入れたとしても、大学も裏口入学し、それもやっとの成績で卒業し、そして勤めさきの会社にも裏口入社をし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ると、いつもの劣等感に苛まれるのであった。 (冬)

(17)~(19)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를 이중선과 같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부정적'이란,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에 대해,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7)~(19)의 이중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なければならぬ」문의 동작주는 (17)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 (18)에서는 「소년원에 보내고 싶지 않다」, (19)에서는 「부정 입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なければならぬ」가 「なぜ·なければならぬのか」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20) 尚中はともかく、自分と年齢のあまり違わぬ若い男性にまで、先程の姿態を覗き見られたのかと思うと、ぎんはその場に坐っていられなかった。診療も治療ももうどうでもよかった。一刻も早く診察室を出て、部屋に戻りたかった。

「何故……」とぎんは熱くなった頭の中で問い返した。何故わたしはこんな罰を受けねばならぬのか。なぜ、わたしだけがこんな苦しみを味わわねばならぬのか。死にたい。いや死んでも同じことだとぎんは思った。 (花)

(21) 「たとえ病気で無断欠席は退学処分になります。とにかく謝りに見えてはいかがですか」

「明日伺います」

答えながら、ぎんはこんな嫌な思いを何故自分だけが味わわねばならぬのかと腹立たしくなった。 (花)

(20)(21)의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는 현실세계에 있어서 이미 실현된 사태로, (20)에서는 「벌을 이미 받았고, 이미 고통을 맛 보았다」, (21)에서는 「이미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현실세계에서 실현된 사태에 대해 「死にたい」「腹立たしくなった」와 같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22)(23)의 화자는 동작주에게 있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동작주가 실행에 옮길지 여떨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 (22) 加能彦次郎は、あの爺いが死なないかぎり、修一郎を叩き直すのはまず望みがないな、と戸を見て思った。しかし、出来るだけのことはやら ねばならぬ。それは修一郎のためではなく、理一のためであった。彼のみたところでは、理一は修一郎の父である前に公正な経営者であった。(冬)
- (23) 落ちつづける数字を説明するためにセールス・マンたちは毎月なにか口実を探さなければ ならぬ。雨のない月は国鉄ストが、ストのない月は遊覧船の沈没が、汽車もとまらず船も沈まない月は颱風か洪水か大颱風があった。(パ)

(22)의 동작주인 「加能彦次郎」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만 했다(할 필요가 있었다)’, (23)에서는 회사원들이 ‘매월 변명거리를 찾아야만 했다(찾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실행에 옮길지 여떨지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다. 다시 말해, 동작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변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24)(25)와 같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가 규칙, 규범 등의 경우,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 강제적인 의미가 더해진다⁶⁾.

- (24) いったん閉めた戸は部屋のなかからは開か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ホテルの部屋の戸は部屋のなかからは開けられるが、外からは開けられ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が、ちょうどそれと反対の鍵のとりつけ方をしているのが少年院である。
そして九時半には床に入らねばならない。少年達の点呼を終え、全員を部屋に収容したあとで、寮監が、もし少年達に注意することがあれば、それは放送を通じておこなわれる。(冬)
- (25) 教官になった者は三カ月間の研修を受けねばならないのに、現実には予算が不足しているので一か月しか受けられない。一か月のあいだに、法律全般を学ぶ。ところが、一か月といっても、法律だけを学ぶわけにはいかず、たとえば少年院が火事になったときの消火訓練などもやら ねばならないし、その他教官になるためのいろいろなことを研修しなければならぬ。(冬)

(24)(25)의 동작주는 각각 소년원의 소년들, 연수생들이며,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는 소년원의 규율, 연수에서 정해져 있는 이수내용이다. 즉, (24)(25)의 동작주의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에 대한 실행에는 강제성이 동반된다. 또한, (24)(25)와 같이 동작주의 실행에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경우는 「なければならぬ」를 「必要がある」로 바뀌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24)' いったん閉めた戸は部屋のなかからは開か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ホテルの部屋の戸は部屋のなかからは開けられるが、外からは開けられ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が、ちょうどそれと反対の鍵のとりつけ方をしているのが少年院である。
そして九時半には床に入らねばならない / 入る必要がある。少年達の点呼を終え、全員を部屋に収容したあとで、寮監が、もし少年達に注意することがあれば、それは放送を通じておこなわれる。

6) 奥田(1999)는 (24)(25)와 같은 「なければならぬ」를 <규범적인 필요>로 분류하고 있다.

(25) 教官になった者は三カ月間の研修を受けねばならないのに、現実には予算が不足しているので一か月しか受けられない。一か月のあいだに、法律全般を学ぶ。ところが、一か月といっても、法律だけを学ぶわけにはいかず、たとえば少年院が火事になったときの消火訓練などもやらねばならない/やる必要があるし、その他教官になるためのいろいろなことを研修しなければならぬ/研修する必要がある。

이에 반해, (26)(27)과 같이 동작주의 실행에 있어 강제성이 없는 경우는 「なければならぬ」를 「必要がある」로 바꾸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26) 男子の小便所とその大使用とは続いていた。塾生達は下が楯状になった男子用に雀のように何人も並び、呵々大笑しながら悠々と小用を足している。休み時間は限られているからその時でも吟子は一つだけある大使用に入らなければならぬ/??必要がある。だがこの時が吟子にとっては一番辛い時間であった。(11) 변형)

(27) 興行とテレビの関係、ジムとジムの力関係、多くのことに無知だったために、思わぬ遠回りをしなければならぬ/??する必要があった。(12) 변형)

이상의 분석에서, 「なければならぬ」는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나타내며,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なければならぬ」가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なければならぬ」의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사태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이 있어 오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시험이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오늘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오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내일 시험이 있다는 결과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2 「なければならぬ」문의 술어

본 연구에서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술어를 조사해 본 결과, <표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1> 「なければならぬ」의 술어

동사	동작동사	167/172예	형용사	1/172예
	상태동사(ある)	3/172예	명사	1/172예

<표1>에서,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술어는 (28)(29)와 같이 주로 동작동사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8)(29)의 「なければならぬ」의 술어는 「つくる」「つとめる」로, 동작주에게 있어 실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작들이다.

- (28) 澄江は着物をたたむと箆箆に仕舞い、再び茶の間に戻った。茶箆箆の置時計を見たら正午をすこしすぎていた。つる子が戻ったら、ぶらぶらと街に買物に出てみよう、と考え、それから台所に入った。午前中で授業を終えて戻る行動の昼食をつくらねばならなかった。(冬)
- (29) 万年はすでに五十歳を越え、五年前に母を失っていたので長女の萩江は家事から万年の身の回りまで母の替りをつと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さらに万年が往診や、個人教授に外出する時は、集まってくる子弟を相手に代講をする。(花)

그러나, 많지 않은 예였지만, (30)~(32)와 같이 상태동사, 형용사, 명사술어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 (30) 「俺はなんでも一流が性に合うんだ」
と彼はとりまきの女の子達に言っていたが、一流のホテルに泊り、一流のレストランに入るには、まず金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冬)
- (31) しかし、特売はあくまでも一時的な需要喚起にすぎないのだ。これは一種の中毒症状である。ひとつの刺激がおわれれば、つぎの刺激はかならずそれより大きくなければならぬ。(パ)
- (32) 任意の状況も行為も私には禁じられていた。私自身の任意の行為によって、一つの生命の生きる必然を奪った私にとって、今後私の生活はすべて必然の上に立たねばならぬはずであった。そして私にとって、その必然とは死へ向かっての生活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野)

(30)은 상태동사인 「ある⁷⁾」, (31)은 「大きい」라는 형용사, (32)는 「生活である」라는 명사술어가 사용되고 있다. (31)(32)의 형용사, 명사술어는 (31)'(32)'의 '大きくする', '生きる'와 같이 동작술어로 바뀌도 문의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된다⁸⁾.

- (31)'しかし、特売はあくまでも一時的な需要喚起にすぎないのだ。これは一種の中毒症状である。ひとつの刺激がおわれれば、つぎの刺激はかならずそれより大きく / 大きくしなければならぬ。
- (32)'任意の状況も行為も私には禁じられていた。私自身の任意の行為によって、一つの生命の生きる必然を奪った私にとって、今後私の生活はすべて必然の上に立たねばならぬはずであった。そして私にとって、その必然とは死へ向かっての生活で / 向か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ぬ かった。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なければならぬ」는 주로 동작동사에 사용되며,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なければならぬ」의 술어에 주로 동작동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なければならぬ」의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사태의 실현이 '필요하다(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동작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태술어, 형용사, 명사술어가 「なければならぬ」와 거의 共起하기 않는 것은 '있을 필요가 있다(ある)', '맛있을 필요가 있다(おいしい)', '학생일 필요가 있다(学生であ

7) (30)의 「なければならぬ」의 술어는 형용사인 「な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단, (30)의 술어가 「ある」「ない」 둘 중 어느 것이라고 해도, 「なければならぬ」의 술어에 상태동사나 형용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8) (31)의 「大きい」를 「大きくする」, (32)의 「生活である」를 「生きる」로 바꾸면 동작주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なければならぬ」문의 의미를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る)와 같이 동작동사에 비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奥田(1999)는 「なければならぬ」를 <필요>와 <필연>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의 <필요>와 <필연>은 연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요>라는 의미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なければならぬ」가 <표1>과 같이 의지적 선택이 가능한 동작동사와 주로 共起하는 것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3.3 「なければならぬ」문의 동작주의 인칭

<표2>는 「なければならぬ」가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동작동사 167예 중 동작주의 인칭을 정리한 것이다.

<표2> 동작주의 인칭

특징	1인칭	83/167예	3인칭	82/167예	합계 165/167예
불특정	합계 2/167예				

<표2>에서 동작동사 167예 중, 1인칭이 83예, 3인칭이 82예로, 동작주가 특정인인 경우는 165예였다⁹⁾. 이에 반해, 불특정한 경우(일반주체)는 2예에 불과했다¹⁰⁾.

(33)(34)의 동작주는 1인칭이며, 화자는 동작주인 私에 있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를 '필요한'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

(33) 私をこの行為に導いた運命が誤っているにせよ、私の心が誤っているにせよ、事実において、私が一個の暴兵にすぎないのを、私は納得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野)

(34) フレイジャーの唖れた低い声が、不意に耳の奥でよみ甦った時、私は唐突に、勝たなくては駄目だ、と思った。勝たなければ駄目だ。どんな不様な闘いであれ、勝たなければならぬ。フレイジャも、マニラで勝っていさえすれば、アリの前座をつとめるなどということはなかったはずなのだ。(一)

(33)(34)에서는 동작주인 私의 의지, 각오 등의 뉘앙스가 느껴진다.

(35)(36)의 동작주는 3인칭이다. 화자는 동작주인 彼, 彼ら에게 있어 「なければならぬ」문을 필요한 사태로써 판단하고 있다.

9) 용례분석에서, 동작주가 2인칭인 경우는 없었지만, 이것은 지문이라는 텍스트의 특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화에서는 사용된다고 생각되는데, 회화에 있어서의 분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10) 본 연구의 용례분석에서, 동작주의 인칭이 불특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 이유는 소설이라는 텍스트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설이라는 것은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텍스트들과도 비교해 보고 싶다. 또한, 「なければならぬ」의 동작주가 특정인인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를 「なければならぬ」의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와 관련지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 (35) 彼は毎日の展覧会にでかけ、宣伝車を指揮し、アポロやヘルクレスの行動をくまなく監視して対策を考えなければならぬ。 (ハ)
- (36) 微発地から首都までと、首都から北方辺境までの距離はこまかく分割されて、兵士たちはそれぞれの受持区のなかを独立的に往復しなければならぬことになったのだ。 彼らは必要人員をきめられた日時に目的地へはこばねばならぬ。もしそれが果たされず、遅れたり欠員ができたりすれば、兵士たちは到着地の現在時をもって死刑、または流刑に処せられる。 (ハ)

(35)(36)은 동작주의 직업상, 彼나 彼らの 의지나 의무 등의 의미가 느껴진다.

(33)~(36)의 「なければならぬ」 문의 동작주가 특정인인데 반해, (37)(38)의 동작주는 불특정인(다수)이다.

- (37) 彼によればこの旅行の唯一の資格は首と胸がつながっていることだけで、もし首がなければ他界に生きのび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人は透明な影となりながらなおかつ永久に閉じることのない傷を抱いて辻や戸口をさまよいつづければならぬはずであった。 (ハ)
- (38) 戦うということより修正を求めていった。矯風会の運動が多く¹¹⁾의支持を得ながら、明治大正期の社会運動の大きな力になり得なかったのはこの辺りに原因があったと思われる。それはともかく、この運動によって婦人の議會傍聴は許され吟子達の目的は達せられた。これは婦人団体の政治運動が成功した日本で初めての出来事として注目されねばならぬ。 (花)

(37)은 지금까지 살펴 본 예들과 마찬가지로, 「永久に閉じることのない傷を抱いて辻や戸口をさまよいつづける」에서 알 수 있듯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38)은 위에서 살펴 본 예들과 달리,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사태의 실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¹¹⁾. (38)에서의 「なければならぬ」는 '부인들의 의회 방청이 허락된 것이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주목 받기를 바란다, 주목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なければならぬ」의 동작주의 인칭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 동작주의 의지, 의무, 바람 등의 뉘앙스¹²⁾는 「なければならぬ」의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자는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를 동작주에게 있어 '필요가 있는' 사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태를 의지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 실현이 의무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 사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상,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 용법을 지문에 나타난 「なければならぬ」문의 특징, 술어, 동작주의 인칭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본 연구에서의 용례분석에서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는 (38)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なければならぬ」는 「なければならぬ」문의 실현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의 경우, (38)과 같이 긍정적인 바람의 뉘앙스로 분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가 여겨진다.

12) 인칭에 따라 의지, 희망 등과 같은 뉘앙스의 경향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 ① 인과관계에 의한 문에 나타나며, 〈결과〉를 나타낸다.
- ② 「なければならぬ」는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이 ‘필요가 있다(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실현에 대해 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③ 동작 실현에 대해서는 동작주가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④ 술어는 주로 동작동사이다.
- ⑤ 동작주는 주로 1,3 인칭으로 특정된 경우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①~⑤의 분석결과로부터 「なければならぬ」는 인과관계에 있어, 〈결과〉를 나타내며, 화자가 주로 특정된 동작주에 있어 「なければならぬ」로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실현을 ‘필요가 있는’ 사태로서 판단할 때 쓰이는 모달리티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의 의미를 3개의 관점에서 분석했지만, 앞으로 같은 기준으로 「べきだ」「ざるを得ない」등 다른 가치판단 모달리티 형식 및 무표형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なければならぬ」고유의 의미특징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싶다.

【참고문헌】

- 奥田靖雄(1988) 「文の意味的なタイプ-その対象的な内容とモーダルな意味とのからみあい-」 『教育国語』 92 pp.14-28
- 奥田靖雄(1999) 「現実・可能・必然(下)-なければならぬ-」 『ことばの科学』 9 むぎ書房 pp.195-261
- 工藤真由美(1995)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 工藤真由美(2014) 『現代日本語ムード・テンス・アスペクト論』 ひつじ書房
- 高梨信乃(2010) 『評価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2007) 『日本語モダリティの探求』 くろしお出版 pp.213-228
- 森山卓郎(2000) 「基本除法と選択関係としてのモダリティ」 『モダリティ』 岩波書店 pp.1-78

〈음례출전〉 『CD-ROM版 新潮文庫の100冊』 (1995) 新潮社
 (『冬の旅』 『花埋み』 『一瞬の夏』 『パニック』 『女社長に乾杯!』 『野火』)

※ 출전이 없는 음례는 作例임.

〈 要 旨 〉

因果關係からみた「なければならぬ」の意味・用法

本稿は「なければならぬ」の意味・用法を「なければならぬ」文の特徴、述語、動作主の人称の観点から分析した。分析結果、「なければならぬ」は因果關係における文に現れ、〈結果〉を表すと述べた。また、「なければならぬ」は「なければならぬ」文の実現が必要であることを表すが、主にその実現を否定的に捉えている文脈において使われることも説明した。また、述語においては主に動作述語が使われ、動作主の人称は主に特定人物であると述べた。さらに、動作の実現に対しては動作主が意志を持って選択できる場合とそうでない場合があることも提示した。これらの分析結果をもとに、本稿では「なければならぬ」は「なければならぬ」文の実現が「必要である」ことを表すモダリティ形式であると主張した。

論文分野：意味論

キーワード：因果關係、なければならぬ、文の特徴、述語、動作主の人称

■ 김혜연(金惠娟)

건국대학교 강사

mahou@hanmail.net

- 投稿日 : 2016년 12월 31일
- 審査開始 : 2017년 1월 8일
- 審査完了 : 2017년 2월 5일
- 掲載確定 : 2017년 2월 17일